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통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사도 13,14.43-52

화답송 | 100(99),1-2.3.5(© 3ㄷ 참조)



(후렴) 우 리 는 주 님 의 백 성 그 분 목 장 의 양 떼 라 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

제2독서 | 묵시 7,9.14ㄴ-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0,27-3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성가 | 입당 55 예물준비 221(219)
영성체 180(181) 파견 132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의 영혼을 위하여
- 강인구, 유철순의 영혼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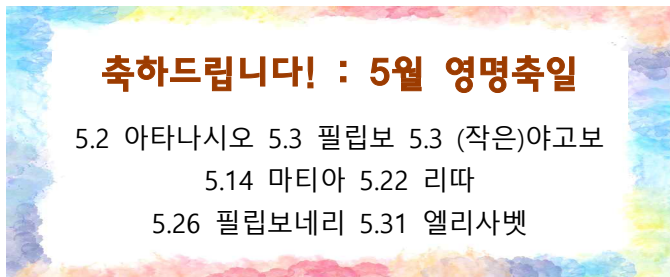
생미사 지향

- 윤숙경 마리아: Happy Mother's Day
- 강진영 릴리안을 위하여
- 조성자 데레사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 한 안나, 박 올리바를 위하여
- 조성자 데레사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 바자회의 성원을 위하여
- Bakersfield 한인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 2025년 성령대회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 정유진 콘솔시아를 위하여
- 남정자 미카엘라
- 한서희 데레사: 생일축하
- 김병식 안셀모의 건강을 위하여
- 이미진 Joanne Grace를 위하여
- 심은희 헬레나를 위하여
- 노희범 라우렌시오를 위하여
- 이은경 헬렌: 생일축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5월 11일	조소연	김규현	민재인	강진영	김종선	한서희 이예진
5월 18일	김유화	정은철	이경자	김미혜	이영혜	조성윤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 Sr.마리루시

5월 축일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서정권 형제님을 위한 연도 봉헌합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5월 첫영성체 & 견진성사

날짜: 5월 25일 주일(청소년주일) 미사 중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예수성가정회 회원 모집

대상: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

4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부

문의: 858.345.0307(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부활 세레반 첫 고해성사

2025년 부활 세레반 고해성사 예절 연습과 첫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레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일시: 5월 17일(토) 3:00-5:00 PM

모임 장소: 큰회의실

5월 성모의 밤 행사

전 공동체 행사이오니 모든 신자분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17일(토) 6:00 PM 장소: 대성전(위 성당)

6월 바자회 특전 미사 & 기금 모금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집회 4.2)

바자회 취지: 아씨시 성프란치스코성당 ‘Breadline’ 및 지역사회 후원

- 바자회 전날 준비를 위한 특전미사가 있습니다.

일시: 5월 31(토) 6PM. 장소: 소성전(아래 성당)

- 바자회 기부 희망하시는 분들은 산 다미아노 홀에서 담당자(표해심 카타리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ME 부부 주말 피정

일시: 5월 24(토) 7pm ~ 26(월) 5pm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신청: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문의: 646-322-3484(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2025 미동부 ME Walk-a-Thon 기금 모금

대상: 누구나 참가비: \$20(경품추첨 있음)

일시: 6월 8(주일) 2pm

장소: Overpeck 공원

Henry Hoebel Pavilion Leonia, NJ

주최: 미동북부 ME

문의: 646-322-3484(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루카스 크라나흐(아들)

(Lucas Cranach der Jüngere, 1515-1586)

1540년경, 나무에 그림, 20.5x14.5cm

앙거박물관, 독일 에르푸르트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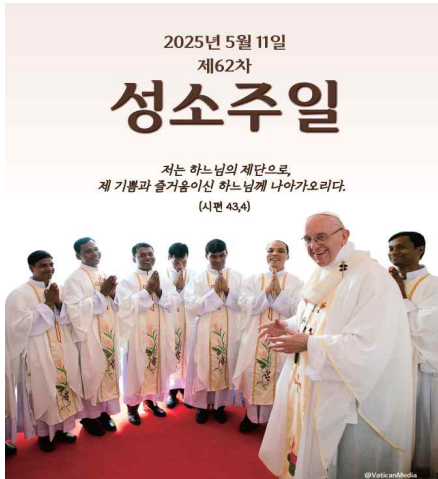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제62차 성소주일 담화

(2025년 5월 11일)



희망의 순례자: 생명의 선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제62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선물로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달라는 격려의 초대와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성소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 주신 귀중한 선물이며 자기 밖으로 나가 사랑과 봉사의 여정에 나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평신도로, 수품 직무자로, 또는 축성 생활자로 부름받는 교회의 모든 성소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당신 자녀에게 주시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특정 성소를 받아들이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은 ‘과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78항). 삶을 선물로 내어 주는 데에는 너그럽고 충실한 응답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고(루카 24,32 참조), 우리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께 그 사랑을 가장 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은 모든 성소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희망과 애덕의 표현으로서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하느님 계획 안에서 성소와 희망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하느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희망이 모든 성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저마다의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한 확신으로서 단순히 인간의 낙관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의 순례자, 용기 있게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바쳐 그분의 제자요 선교사가 되는 기쁨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성소 여정을 식별하기

우리는 식별 여정의 결과로 우리의 성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식별의 여정은 결코 고독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서둘러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한편 하느님께 열려 있게 하는 침묵의 경험을 방해하는 줄기찬 소음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경청하고 하느님께 여러분을 위한 하느님 꿈이 무엇인지 여쭙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특정 상황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의식적이고도 자유롭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의 침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안의 묵상은, 우리가 세상의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선물이 되게 할 때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성소는 빛과 위안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 그 어디든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사회적 직업적 헌신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한 ‘소금과 빛과 누룩’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소 여정에 동반하기

그러므로 사목자와 성소 지도자, 특히 영성 지도자는 하느님의 ‘교육 방법’을 반영하는 희망과 인내와 신뢰로 젊은이들을 기꺼이 동반하며 존중과 공감으로 경청하고 하느님 현존의 표징을 식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이는 현명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삶과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를 증진하고 저마다 주님 목소리에 영적으로 열려 있도록 돕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교회에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목자, 수도자, 선교사, 부부가 필요하고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성소들을 낳을 때 살아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기쁨의 원천임을 자기 삶으로 선포하는 희망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계속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추수할 새 일꾼들을 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교회의 어머니시며 성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희망의 순례자로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저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2025년 3월 19일
프란치스코